

지자체 교통문화 수준 분석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2025. 2.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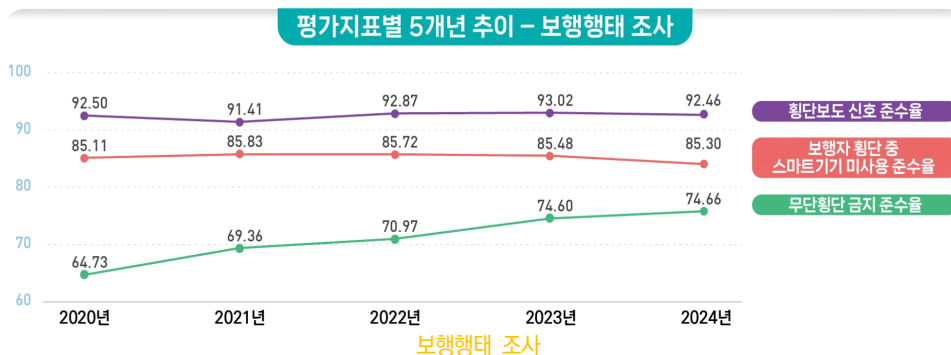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4년 80.73점으로 '23년(79.92점)보다 0.81점 상승하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별 결과

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2293.91%→'2495.99%),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258.23%→'2463.4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2281.43%→'2482.12%)은 최근 2년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형지시등 점등률('2376.00%→'2475.59%), 제한속도 준수율('2366.43%→'2465.47%)은 전년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보행행태 조사 결과,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2270.97%→'2474.66%)은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2393.02%→'2492.46%),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2385.48% → '2485.30%)은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행자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별 조사 결과

’2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강원 원주시(90.35점, 인구 30만 이상 시), 충남 논산시(89.32점, 인구 30만 미만 시), 충북 영동군(87.39점, 군 지역), 인천 연수구(85.78점, 자치구)가 각각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전년 대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서울 강서구’(83.49점, ’23년 E등급 → ’24년 B등급)가 선정되었다.

특히, 군 단위 1위를 차지한 영동군에서는 보행자 대부분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거의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준수하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모두 안전모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영동군 주민들의 높은 교통문화의식은 1년 동안 보행사망자 0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구분	지자체	우수평가 내용
30만 이상 시 (29개)	강원 원주시	▶ 운전행태 A등급(안전띠 착용률, 신호 준수율 그룹 1위) ▶ 민·관 협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체계 개선 등 보행환경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안전통학로 조성 등 교통안전 예산 연간 270억 투입
30만 미만 시 (49개)	충남 논산시	▶ 운전행태 상위(운전 중 스마트폰기 미사용 준수율 3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4위) ▶ 보행행태(30위→9위,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61.32%→80.19%) 개선 ▶ 시민 안전 교통문화 조성 등 교통안전 예산 연간 55억 투입
군 (82개)	충북 영동군	▶ 운전행태 그룹 1위(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1위, 안전띠 착용률 5위) ▶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및 사업용 차량 사망자 0명 달성(’23.7~’24.6)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교통질서확립 등 교통안전 예산 연간 10억 투입
자치구 (69개)	인천 연수구	▶ 교통안전 그룹 1위(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율 1위, 행정노력도 4위) ▶ PM주차 패널티존 21개소 지정·운영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도로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정비 등 교통안전 예산 연간 86억 투입
개선 우수	서울 강서구	▶ 운전행태(방향지시등 점등률 56.61% → 79.79%) 및 교통안전(행정노력도 67위→10위) 개선 ▶ 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등 보행안전 개선사업 추진 ▶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안전 예산 연간 40억 투입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이내 시·군·구 중 조사를 신청한 4개 지자체를 선정,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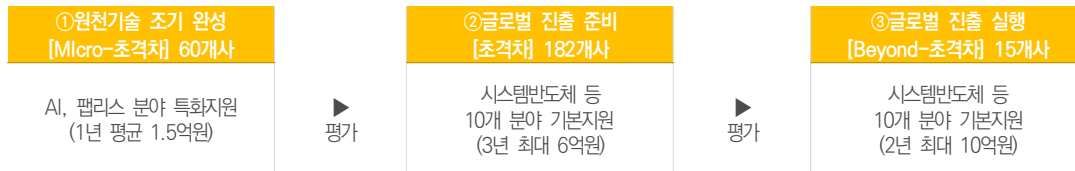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전환(AI·AX) 스타트업 육성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2025. 2. 5.(수)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수)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성장 분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핵심 분야 및 유망 인공지능전환(AI·AX)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달 공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 중 올해 신설한 1단계 '마이크로(Micro) 초격차' 프로그램으로,

초격차 프로젝트 단계별 프로그램



작년 7월, 인공지능(AI)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고성장 분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24.7.10발표)을 이행하는 첫 번째 신규 사업이다.

이번 공고로 총 20개의 유망 인공지능·인공지능전환(AI·AX)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 핵심 분야 사업화

소형언어모델(sLLM), 제조·생명(바이오)·콘텐츠 등 고성장 분야의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하여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자금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인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보유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 실증센터 등의 인프라 활용도 지원한다.

유망 인공지능전환(AI)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경제·사회적으로 성과 창출이 용이한 제조, 생명(바이오), 콘텐츠 등 3대 분야에서, 대·중견·중소기업 등 수요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여 고도화 할 수 있는 혁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전환(AI)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협업 자금 8천만원과 신규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에 선발되어 지원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창업 기업(스타트업)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사업으로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5년간('23~'27) 1,000개 이상 선발·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 (3년간 최대 6억원 기술사업화 자금, 2년간 10억원 후속 스케일업 자금 지원)

한편,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과 관련한 후속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AI 초격차 챌린지 (2.26 ~ 3.18 접수)

우선, 전년도에 이어 국제적(글로벌) 대기업과 유망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수요기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유도과 판로를 확보해 주는 '인공지능(AI) 초격차 챌린지'를 2월 26일에 공고하였다.

특히, 올해는 LG전자와 함께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분야 기기 제품을 기존 노트북에서 TV 등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컬컴 코리아와 신규로 '버티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 신규 대형IT기업(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AI 초격차 챌린지 개요

구분	내용	지원 협업자금	접수기간
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스마트 TV,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이어폰·스피커, IT 기기,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가전 등 6개 분야 지원	최대 1억원	25.2.26. ~ 25.3.18.
버티칼(Vertical)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자율주행 로봇틱스, 차량용 AI 카메라 기반 AI Edge Box, 인스펙션 드론, 산업용 핸드 헬드기기 등 4개 분야 지원	최대 1억원	

향후 지원계획

지역별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선도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혁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인공지능전환(AI) 협업을 매칭하는 '인공지능(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프로젝트'를 4월에 공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성장(레벨업) 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

행정안전부, 2025. 2. 12.(수)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 최근 5년간(‘19~’23년) 도로 결빙 교통사고 3,944건 발생(사망 95명, 부상 6,589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반에서는 결빙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결빙 교통사고 예방 강화

도로 결빙 위험성 사전 검토 및 기상 정보 제공 강화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 강화 등 결빙 예방시설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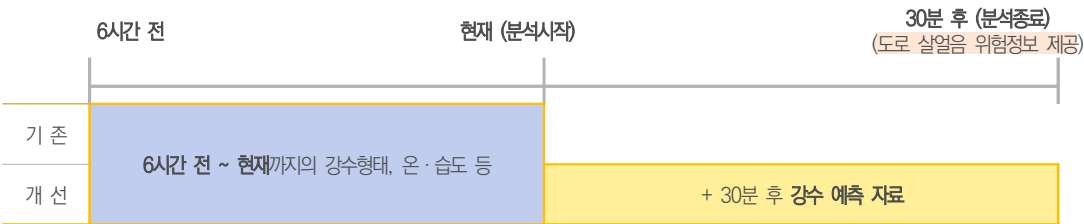
* 터널 입·출구부, 교량, 경사로, 곡선부, 비탈면, 응달부, 차량 합류구간 여부 등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기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 생산 시 관측과 위험정보 제공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30분 이후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 현재 7개 노선 259개소 → ‘25년 366개소(107↑) → ‘26년 469개소(103↑)

** (기존) 과거 6시간 전~현재까지의 관측된 기상 데이터 활용 → (개선) 30분 이후까지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 추가

도로 결빙 기상정보 제공 개선



도로 결빙 취약구간 관리 체계개선 및 제설작업 강화

결빙 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관리 기관별(국토관리청, 지자체, 도로공사, 민자도로사업자 등)로 각각 다르게 수집·관리하고 있는 결빙 취약구간 데이터의 항목, 형식 등도 표준화한다.

겨울철(11~3월) 동안 제설차량을 긴급자동차로 폭넓게 지정해 경광등·사이렌 사용과 긴급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한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운영 개선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으로 한정 → (개선)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등도 자체 예산으로 설치 및 기부채납 가능

** 현재 영종대교(단속 실시 중) → 추가 서해대교 → 확대 장대 교량, 해상 교량 등 특수교량

구간단속 카메라의 시점, 종점 설정 시 터널·교량, 비탈면, 응달 여부 등 인근 결빙 취약 요인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조사 체계 마련 및 통합 정보 제공

일정 규모(15중 추돌) 이상 결빙 교통사고는 전문 조사기관(도로교통공단)의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위험기상 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 도로 지형정보를 포함한 비기상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기상청)'을 구축한다.

운전자 안전 인식 제고

결빙 정보 알림 강화 및 겨울철 안전운전 홍보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사고 지점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운전자가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결빙 가능성이 높은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색상이나 문양이 변하는 감응형 노면표시를 도입한다.

감응형 노면표시

문자	문양	노면온도 +1℃	노면온도 +2℃
			

눈길·빙판길 운행 시 체인 또는 스노우타이어와 같은 월동장구를 사용할 것을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명시하고, 운전면허시험에 눈길·빙판길 운전요령 내용을 늘리고, 도로 결빙 시 운전자 안전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 일부 지방경찰청 고시에 월동장구 비치사용준수 명시, 일관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대

결빙 사고 방지 기술 개발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 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 검증 후 결빙에 취약한 터널·교량 등에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한국 기후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국산 도로기상관측 장비와, 기상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 속도가 자동 변경되는 카메라와 같은 가변형 단속 장비도 개발하여 도로 결빙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본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방 중심의 접근과 첨단 기술의 활용, 그리고 운전자 인식 개선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세부 이행 과제

추진과제	관계 부처(기관)
① 결빙 교통사고 예방 강화	
▪ 결빙 위험성 사전 검토 실시	국토부
▪ 도로 기상 정보 제공 강화	기상청
▪ 결빙 취약구간 지정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국토부, 행안부
▪ 제설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운영 확대	경찰청
② 안전관리 체계 개선	
▪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운영 체계 개선	경찰청
▪ 도로 결빙 사고 조사 기준 및 체계 마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 지정 확대	국토부
▪ 도로 결빙 관련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기상청, 국토부, 도로공사
③ 운전자 안전 인식 제고	
▪ 운전자 대상 결빙 정보 알림 강화	행안부, 도로공사
▪ 겨울철 월동장구 휴대 및 장치를 제고	국토부, 경찰청
▪ 운전자 대상 교육 홍보 강화	도로교통공단
④ 결빙 사고 방지 기술 개발	
▪ 도로 노면 결빙 지면 포장 개발 및 적용	국토부
▪ 도로기상관측망 센서 개발	기상청
▪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 고도화	행안부, 경찰청